

- 2017년 의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

#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공무 국외연수 개요 (요지)

◆ 연 수 국 : 호주, 뉴질랜드

## ◆ 연수목적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복지정책, 도시계획 분야 및 관광, 경제 등을 견학·비교시찰 분석을 통해 시찰도시의 우수 정책 및 우수사례를 우리의회의정활동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7. 10. 23.(월) ~ 2017. 10. 30.(월) (6박 8일)

## ◆ 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1	중구의회	의회운영 위원장	박영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2	중구의회	의 원	정희창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3	중구의회	의 원	고문식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4	중구의회	의 원	이화묵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5	중구의회	의사팀장	안효완	자료수집 지원 및 의전수행
6	중구의회	주 무 관	김정주	자료수집 지원 및 의전수행

- 2017년 의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

# 호주/뉴질랜드 공무 국외연수 보고

## I 연수개요

### ■ 연수배경

- 호주 보육기관의 보육정책과 시드니한인회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쇠퇴한 골칫거리 항구를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개발한 수변공간 도심 재생사례 달링하버를 탐방하여 지역 도심재생사업에 활용
- 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며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농업현장을 시찰하여 견문 확대를 통한 향후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 연수기간 : 2017. 10. 23.(월) ~ 2017. 10. 30.(월) [6박 8일]

■ 방 문 국 : 2개국

- 호주 / 뉴질랜드

■ 공식방문기관

연수국	방문기관	방문목적
호주	시드니 아동복지시설 - Early Learning Centres	호주 아동보육시설 견학 비교분석 공 공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호주	호주 한인 복지회 -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Inc	한인 네트워크 현황 및 노인복지정책 관련 비교연구
뉴질랜드	마마쿠 친환경 재배농장	친환경 농업현장을 시찰하여 견문 확대를 통한 향후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 ■ 주요 연수내용

- 보육 및 교육제도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벤치마킹
- 한인 네트워크 현황 및 노인복지정책 관련 비교연구
- 도심재생 사례 및 도시공원 녹지환경 탐방을 통한 향후 적용 가능한 정책발굴

## ■ 연 수 자 (총 6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1	중구의회	의회운영 위원장	박영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2	중구의회	의 원	정희창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3	중구의회	의 원	고문식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4	중구의회	의 원	이화묵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및 연수소감 작성
5	중구의회	의사팀장	안효완	자료수집 지원 및 의전수행
6	중구의회	주 무 관	김정주	자료수집 지원 및 의전수행

## II 연수일정

날 짜	출발지	도착지	내 용	비고
제1일차 10. 23.(월)	인천	호주 시드니	- 기내숙박(비행시간 10시간)	
제2일차 10. 24.(화)	호주 시드니	호주 시드니	- 시드니 아동복지시설 방문 - 수변공간 도심 재생사례 달링하버	
제3일차 10. 25.(수)	호주 시드니	호주 시드니	- 환경보전 공원개발사례 블루마운틴 - 올림픽파크 친환경 습지생태공원	
제4일차 10. 26.(목)	호주시드니	호주 시드니 오클랜드	- 호주 한인 복지회 방문 - 시드니 출발 / 오클랜드 도착후 호텔투숙	
제5일차 10. 27.(금)	오클랜드	로토루아	- 오클랜드 도시공원 녹지환경 탐방 - 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 이동	
제6일차 10. 28.(토)	로토루아	로토루아	- 교통시설물, 도심 쓰레기 처리시스템 현황 - 자료정리	
제7일차 10. 29.(월)	로토루아	로토루아 오클랜드	- 뉴질랜드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현장 탐방 - 마마쿠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농장 방문	
제8일차 10. 30.(화)	오클랜드	인천	- 기내(비행시간 12시간)	

## III 연수국가의 이해

### 호주(AUSTRALIA)

- ◆ 국 명 : 호주(AUSTRALIA)
- ◆ 수 도 : 캔버라(Canberra)
- ◆ 면 적 : 7,741,220km<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 ◆ 인 구 : 21,260,000명(2008년 기준)
- ◆ 민 족 : 영국계(77%), 유럽계(21%), 아시아계(21%), 원주민(2%)
- ◆ 언 어 : 영어(English)
- ◆ 종 교 : 카톨릭(26.4%), 성공회(20.5%), 그리스도교(20.5%)

#### ◆ 개요

호주는 인구가 약 2,030만명으로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정확한 국가 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순이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Sydney)로 인구가 약 390만이고, 인구 320만의 멜버른(Melbourne), 인구160만의 브리즈번(Brisbane)이 그 뒤를 잇는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Canberra)로 정확한 명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인구는 31만명 정도이다.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 ◆ 지리

호주의 면적은 7,741,220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 ◆ 기후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이다. 봄은 9 ~ 11월, 여름은 12 ~ 2월, 가을은 3 ~ 5월, 겨울은 6 ~ 8월이며,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은 27℃, 겨울은 건기로 13℃의 평균기온을 나타낸다. 전체 대륙이 남위 10.41° ~ 43.39° 에 걸쳐 있어 여러개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열대 우림기후, 열대성기후, 아열대성기후, 온대성기후로 나뉘어 진다.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기후의 특징이다.

- 서부의 40%, 북부의 80%는 열대성,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
- 육지의 30%가 사막
- 봄(9 ~ 11월), 여름(12 ~ 2월), 가을(3 ~ 5월), 겨울(6 ~ 8월)
- 평균 해발 300m이하[최고 코지오스코 산(Mt. Kosciuszko) 2,228m]
- 연평균 강우량 : 465mm(전국적으로 100mm ~ 2,000mm 분포)

## ◆ 정부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의 영국 여왕을 수장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고 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는 입헌군주국가이며 쉽게 말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렇지만 호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는 1996년에 당선되어 4기 연속 집권으로 2006년 9월 현재 10년이 넘도록 장기 집권하는 존 하워드 호주 총리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강력한 안보 정책이 그 비결이라고 매체들은 전한다. 실제로 10년전 8%대를 웃돌던 실업률을 최근 5%대로 낮췄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만달러가 채 되지 못한 수준에서 2005년 현재 3만3천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은 존 하워드 호주 총리의 큰 역할이 아닐 수 없다.

#### ◆ 사회

전체인구의 98%이상이 백인이며, 호주의 한국 교민은 2006년 현재 약 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주호주대사관자료) 사용언어는 영어로 영국 영어에 가깝다.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 보존과 국민건강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 **뉴질랜드(NEW ZEALAND)**

-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 수 도 : 웰링톤(Wellington)
- ◆ 면 적 : 268,680km<sup>2</sup>(한반도의 약 1.2배)
- ◆ 인 구 : 4,306,000명(2009년 기준)
- ◆ 주요도시 :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로토루아
- ◆ 언 어 : 영어(English), 마오리어(Maori)
- ◆ 종 교 : 기독교
- ◆ 주요민족 : 앵글로색슨계(90.3%), 마오리인(9.7%)

## ◆ 개요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로 불리는 뉴질랜드는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가로 이다.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 강, 깊고 맑은 호수, 그리고 문명에 때묻지 않은 넓은 휴양림과 길게 뻗은 해변, 대표적 동물 키위와 다양한 여러 동물들로 어우러져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레포츠인 하이킹, 스키, 래프팅, 번지점프 등으로서 더욱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 ◆ 사회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약 380만명으로 그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 용어는 뉴질랜드영어(Kiwi English)를 사용하며 마오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성공회가 24.3%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 지리

뉴질랜드의 면적은 27만 평방 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1.2배에 이르며, 남위 34도 ~ 47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약 1600km 이다. 쿡해협(Cook Strai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주와는 태즈먼해(Tasman Sea)를 사이에 두고 약 2,250km 떨어져 있다.



## ◆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다. 날씨가 자주 바뀌기는 하나 전국에 걸쳐 일조량과 강우량이 충분하다. 여름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겨울에는 남섬의 남부 알프스에 눈이 많이 내린다. 1년중 가장 무더운 때는 1 ~ 2월이며 가장 추운 때는 7 ~ 8월이다. 7 ~ 9월까지는 우리로서 1년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나 폭우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여행에 큰 무리는 없다.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여름철 최고 기온은 약 25℃, 최저 기온은 5℃정도이다. 뉴질랜드는 1일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할만큼 기온의 차가 심하다. 따라서 한 여름이라도 여행하려면 점프나 긴바지가 필수이다. 북섬은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섬보다 조금 더 따뜻하며, 남섬은 남극에 가까워 북섬보다 좀 더 추운 날씨이다.

## IV 견학내용

### 호주 아동보육시설(Early Learning Centres)

#### ■ 방문개요

- ◆ 방문기관 : OZ EDUCATION(EARLY LEARNING CENTRES)
- ◆ 방문일시 : 2017. 10. 23.(월) 10:00
- ◆ 주 소 : 4b Huntley Street Alexandria
- ◆ 시설현황 설명 및 담당자 : POOJA GULATI, CHLOE
- ◆ 방문목적
  - 주요시설 및 사설보육 운영시스템 시찰
  - 예산규모 및 정부지원 현황 등 조사

- ◆ 벤치마킹 목적 : 호주의 보육제도와 사설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등 비교 견학하여 우리구에 반영 검토

## ■ 호주보육제도

- ◆ 보육의 개념

호주의 아동보육정책은 1980년 초부터 유아기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 특히 질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 호주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인증제도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와 보육료 차등지원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 ◆ 보육형태(시설)

호주는 여러형태로 기관 보육시설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호주에도 가정 보육시설이 있지만, 기관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육 시설이 다양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호주의 부모 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맞는 보육시설을 처지나 상황에 따라 고를 수 있다.

- 주간보육원(Day nurserise)
- 소집단센터(Small group center)
- 부모협동센터 또는 지역센터(Parent cooperative or neighborhood center)
- 사설보육센터(Private child care)
- 직장보육센터(Work based center)
- 아동보육센터(Mobile child care services)
- 가정탁아(Family day care)

## ◆ 보육료

호주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뿐만 대부분 가정의 취업과 관련하여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육료에 대한 현금지원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한가지는 취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및 중류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조이고,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육료 환불제도이다. 보육료 보조의 조건은 저소득 및 중산층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이어야 한다. 보육료 환불은 보호자가 취업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도 제공된다.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 아동의 보육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된다. 소득수준의 제한도 없지만 고소득자에게 적용비율은 낮다. 1998년 이후부터는 센터링을 통하여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 ■ OZ Education 현황

1985년에 설립된 오즈 교육은 6주에서 6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족관, 탐사와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개의 대형 놀이터, 자녀의 학습을 위해 설계된 5개의 학습교실을 갖추고 있다. 하루4번의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며, 각 연령 그룹에 맞는 실내 및 야외학습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교육자들은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에 해한 훈련을 하고 있다.

## ■ 주요 토론 및 질의·답변

- » 질의 : 보육교사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은?
- » 답변 : 1일 8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선생님이 직접 정하고 있고, 0세 ~ 2세반은 아이 4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음
- » 질의 :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 답변 : 부모소득에 따라서 개인 은행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원에서는 알수 없으며, 1일보육료를 환산하면 약 100달러 정도를 받고 있음
- » 질의 : 보육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있는지?
- » 답변 : 각 시설 나름대로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사의 자격기준은 4년의 유아교육 전공자 이어야 함. 사립 보육원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가 없으며, 초급 교사의 경우 시간당 18달러정도로 주급을 받고 있음.
- » 질의 : 몬테소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 » 답변 : 몬테소리 유치원은 별도로 있으며, 호주에서는 아직 비 선호하고 있음
- » 질의 :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 » 답변 :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CCTV설치는 안함
- » 질의 : 감사를 받고 있는지?
- » 답변 :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 수시감사는 예고 없이 실시함

## ■ 벤치마킹

호주는 여러 형태의 보육시설이 있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맞는 보육시설을 고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보육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국공립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 있어 사립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경우도 아동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설에 지급하는 것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취업가정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맞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 방문후기

오즈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모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의 질문에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원내에 정수기는 없었으며 아이들이 물병 또는 젓병을 개인이 가져 온다고 한다.

집단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기나 전염병 발병율이 낮다는 설명에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우리나라도 쾌적한 시설과 청결한 환경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방문사진



오즈 보육시설 현황 설명



오즈 보육시설 방문



오즈 보육시설 방문



오즈 보육시설 방문



오즈 보육시설 방문



오즈 보육시설 방문

## 시드니 현장탐방 및 견학

### ■ 수변공간 도심 재생사례 달링하버

쇠퇴한 골칫거리 항구를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개발한 사례로 1984년 수변관광시설 조성하여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2006년 한해 2500만명 관광, 4000명 넘는 신규 고용 창출. 세계적 워터 프론트 복합개발 사례로 100년된 목재 다리가 매우 인상적이며, 쇼핑센터, 박물관, 수족관 등이 자리하며 시드니에서 가장 변화한 곳 중 하나이다. 도시공간에서의 공유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달링하버 견학



달링하버 시설현황 설명

### ■ 환경보전 공원개발사례 블루마운틴 탐방

블루마운틴 야생지역은 세계에서 독특한 존재이며 절묘하게 아름다운 곳으로 유칼립투스 나무로 뒤덮힌 해발 1100미터의 사암 고원이며 1백만헥타르의 울창한 산림지역이다. 지형은 태고적이며 고원은 물줄기들에 의해 표면이 깎여서 아름답고도 험악한 폭포수, 협곡과 지하의 강 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9천만년정의 모습과

같은 미로를 형성하고 있다. 특유의 푸른 빛과 가파른 계곡과 폭포, 기암 등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블루마운틴이란 이름은 멀리서 보았을 때 진한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칼립투스 나무는 모기, 벌레 등 세균들을 막는데 효과가 있으며, 살균작용으로 상처 치유에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시드니 공원에는 돛자리 없이 잔디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며, 블루마운틴의 쓰레기통은 태양광을 이용한 압축 방식이었다.



## ■ 올림픽파크 친환경 습지생태공원 탐방

2000년 열린 시드니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올림픽 단지를 조성, 이용한 환경올림픽으로도 유명하다. 호주 건국 200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시드니올림픽파크 내에 위치한 생태 및 습지 보존 공원으로 특히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곳에 모아 재활용할 수 있게 빗물 도랑을 따로 만들어 빗물을 모으는 시설 등 환경친화적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원래



습지였던 곳을 사람들의 편리한 목적을 위해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전용하던 곳을 다시 습지로 복원하여 남아있던 원래 습지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례 및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여 원시습지를 보전 복원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호주 한인 복지회

### ■ 방문개요

- ◆ 방문기관 :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Inc.
- ◆ 방문일시 : 2017. 10. 26.(목) 10:00
- ◆ 주 소 : 94 Beamish St, Sydney NSW 2194
- ◆ 시설현황 설명 및 담당자 : Agnes Lee
- ◆ 방문목적
  - 한인 네트워크 현황 조사
  - 호주복지정책과 다문화 정책 조사

- ◆ 벤치마킹 목적 : 호주복지정책과 다문화 정책 특히 노인복지 현황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으로 비교하여 우리구에 반영 검토

## ■ 호주의 노인복지

- 60세 이상은 시니어카드 발급 받음
- 55~65세까지 노령연금 수령 이전까지는 한인 복지회와 같은 정부인정 기관에서 주15시간 봉사하면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고령자나 건강이 좋은 젊은 자에게는 정부주택이 빨리 나옴.
- 호주거주 기간이 35년 이상인 한국인에게는 한국에서 영구 거주자에게도 노령연금이 매2주마다 한국으로 지급됨(2008년 사회보장협정체결)

## ■ 호주 다문화 정책

호주로 건너온 영국계 첫 이민자들은 철저히 앵글로 켈틱 중심의 영국 중심의 문화였다. 소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정책은 1800년에서 1972년까지 연속되어 지며, 1901년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영구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만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Immigration Restruction Act를 제정하여 비 유럽인들의 이민을 억제했다.

이민자들의 풍요로운 문화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앵글로 켈틱의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지 않으면 배격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영국계 이민자들만으로는 당시 노동력이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유고 슬로비아로부터 이민을 받게 된다.

호주는 매년 자연주가 10만명, 이민 20만명으로 3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주의 국가를 형성한 지구상의 최대 복지 및 슬기로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국가이다.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주의는 각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인정 존중하면서 호주의 주류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

## ■ 호주 한인복지회

### ◆ 호주 한인복지회 현황

호주 한인 복지회는 197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여러 호주 정부기관의 지원금과 한인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한인 교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호주 한인 복지회는 한인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통합 되는 것을 도와 시드니 한인들이 의미 있고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 한인복지회는 관련 정보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한다.

### ◆ 서비스종류

-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착서비스
-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 주간 노인복지센터
-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그램
- 취학전 아동을 위한 진학준비 프로그램
- 학생실습과 자원봉사 기회 제공
- 영어문서 작성 보조서비스 등

## ■ 주요 토론 및 질의·답변

- » 질의 : 한인복지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 답변 : 1976년 발기하여 1979년 시작하여 교민 선각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3년도 처음으로 호주 정부 펀드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한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3곳이 있으며, 이용자 평균연령은 80세로 점심제공, 문화교실 운영 등 한국의 일부 프로그램을 호주로 가져옴.
- » 질의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 » 답변 : 세금이 45%이상이며, 182,000달러 이상이 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 연금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어 세금공제 외에 개인연금을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이 추가로 있음. 호주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인데 올해 복지예산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하면 세금혜택은 100%임.
- » 질의 : 한국의 경로당 같은 곳이 호주에도 있는지?
- » 답변 : 호주는 로컬마다 센터가 있으나, 호주의 정서상 한국처럼 어울리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음.
- » 질의 : 현재 한국은 재가복지사업으로 요양보호사가 있으며 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 호주는 어떤걸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는지?
- » 답변 : 응급처치가 가능한 한국 어르신은 한인복지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혼자 생활이 가능한 경우 주택에 손잡이 바 설치등 필요 요청에 따라 혜택이 있고, 실버타운은 좀 더 여유가 있는 경우 친구들과끼리 이용하고 있고,

본인집을 판매하여 공동소유로 이용 가능함. 치매 등 더 이상 혼자 생활이 안될 경우는 양로원을 이용하며 양로원은 사망시까지 노인을 보호해 주며 이 경우 보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기관으로 지급됨.

- » 질의 : 호주의 다문화 정책으로 이민자 수용은 어떻게 하는지?
- » 답변 :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시민권을 받으려면 기본영어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영어를 필요로 하고 있음.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대학학비도 무료로 지원했으나 현재는 시민권자는 용자만 해주며 호주가 아닌 해외에서 취업을 한 경우 해외소득도 신고하여야 함. 한국과는 1994년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으로 35세까지는 이민정착이 수월한 편임.
- » 질의 : 35세이후는 재가복지로 이민정책을 호주정부와 논의해 보는건 어떨까요?
- » 답변 :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어 힘들 것 같음
- » 질의 : 호주의 경우 다문화정책이 성공한 경우인데, 2세대 3세대의 종교적 갈등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답변 : 호주 시티에서 테러가 있긴 했으나 중동의 파워가 한국보다 크며, 중동쪽 사람이 거주하는지역을 피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정책에 불과함.
- » 질의 : 한인이 모이는 구심체는 어디인지?
- » 답변 : 한인복지회는 행사가 많은 편이라 이곳이라고 생각함. 물론 한인복지회와 한인회 두 단체가 중심임.
- » 질의 : 한인회와 복지회의 유기적 관계?
- » 답변 : 한인회는 호주시시스템보다 한국적 교육이 주가 되고 복지회는 호주와 동국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어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름.

## ■ 벤치마킹

북유럽, 호주의 복지가 한국에서 이미 시행중이 것이 있어 노인 복지의 경우가 한국과 비슷한 정책이 많이 있었음. 우리구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복지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땅이 넓어 가가호호 방문이 어려움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연금제도나 정부주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임. 노인복지연금이나 임대주택제도, 장애, 건강상태 등의 검토를 통해 복지가 혜택이 아닌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자리메김 할 필요가 있음.

## ■ 방문후기

호주에서 두 번째 공식방문 기관인 호주 한인복지회를 방문하였음. 한국인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반가운 마음이었음.

호주 복지 시스템의 장점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호주복지의 원칙에는 공정한 세금납부, 국민 기부 의식 투철하며,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자원 봉사정신, 풍부한 자원부존 국가를 들었다. 나라마다 정서는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내가 낸 세금이나 기부금이 투명하게 나에게도 혜택이 온다면 누구나 흔쾌히 납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호주는 다문화주의 국가를 형성한 지구상의 최대 복지 및 슬기로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국가라 한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급증가와 급변화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나 단일 국가가 아닐 수 있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가꾸어야 함. 이제 세계는 하나이다. 세계는 세계문화로서 누  
 구나 똑같이 누려져야 한다는 바램이다.

## ■ 방문사진



호주한인복지회 현황설명



호주한인복지회 방문



호주한인복지회 방문



호주한인복지회 방문



호주한인복지회 방문



## 뉴질랜드 공원녹지 환경,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현장

### ■ 레드우드 수목원

레드우드에는 일년에 1.8m씩 자랄 정도로 생육이 빠른 라디에니터 파인(삼나무) 식물이며 100m이상의 키와 엄청난 부피를 경우 2~3m정도의 뿌리로 지탱한다. 붉은 아름다리 나무가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삼림욕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시민휴양림이다. 이곳은 일반산책로, 자전거길, 말을 탈 수 있는 트랙, 피크닉 공간 등이 있다.



### ■ 마우리족 전통 민속놀이

마우리의 전통음식을 먹으면서 전사들이 싸움을 하기 전 전의를 다짐하는 장면을 재현하여 이를 전통공연으로 만들고, 관광객들도 자기들의 전통놀이에 참여케 하면서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이끌어 갔으며, 전사는 남자 뿐아니라 여자도 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재미있는 공연이었다.



외국관광객들에게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게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 좋았으며 우리도 전통공연시 많은 외국인들이 다 같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행사에 적용하면 좋을 듯 했다.



## ■ 와카레와레와(WHAKAREWAREWA)

현재는 테 푸이아의 명칭을 사용하며, 마오리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보존하고 있는 전통민속촌이며 로토루아의 대표적인 지열지대이다.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 새가 잘 보존되어 있고 간혈천의 장관과 진흙열탕, 온천 등이 대표적이다.



## 마마쿠 친환경 블루베리 재재농장

### ■ 방문개요

- ◆ 방문기관 : Mamaku Blue
- ◆ 방문일시 : 2017. 10. 29.(일) 13:00
- ◆ 주 소 : 311 Maraeroa Road RD2, Rotorua
- ◆ 시설현황 설명 및 담당자 : Philip, 정미라
- ◆ 방문목적
  - 친환경 농업현장 시찰을 통한 견문확대
- ◆ 벤치마킹 목적 : 친환경 농업현장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과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구 관광상품에 적용 가능한 정책발굴

### ■ 로토루아시 현황

로토루아 시의 면적은 2,708km<sup>2</sup>이며 인구는 약 50,652명으로 뉴질랜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의 30~40%가 마오리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산림단지가 조성되어 로토루아시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14개의 호수들과 다양한 지구 활동의 지역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중요한 연구 지역으로 경제는 관광, 농경, 산림 산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 ■ 마마쿠 농장현황

1982년 세워진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은 농장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20ha의 규모의 농장 및 전원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블루베리 와인 재배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직접 손으로 따는 수확철

에는 6톤의 블루베리를 연간 생산하여 냉동제품 와인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농장을 직접 체험하고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것을 체험관광화 하는 등 농장에서 생산뿐 아니라 가공, 판매 유통과 관광 등 수익의 다각화로 연결하고 있다.

## ■ 주요 토론 및 질의·답변

- » 질의 : 밭 위에 그물을 친 것은 새 때문인가요?
- » 답변 : 네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 500여종의 블루베리가 있는데 이곳에는 100여종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화산재로 비옥한 땅임.
- » 질의 : 잡초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 » 답변 : 손으로 뽑거나 기계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초제 사용
- » 질의 : 열매 수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답변 :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람으로도 안되는 부분은 기계를 이용한다. 사람이 수확한 것은 마켓으로 판매되고, 기계로 수확하면 아무래도 손상된 것이 있어 쥬스용으로 사용함.
- » 질의 : 하루일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 답변 : 시간당이 아닌 키로당 4불을 지급하고 있음
- » 질의 : 농장에 정부 보조금은 있는지?
- » 답변 : 없음
- » 질의 : FTA 협정 관련해서 농장에 이익은 있나요?
- » 답변 :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혜택은 없으나 사람 고용에 있어서는 편리해 짐.
- » 질의 : 제품을 캡슐형태로 가공은 안되나요?

» 답변 : 쥬스 등은 바로 흡수가 가능한데 캡슐은 대장쪽에서 흡수하므로 그 효과가 다름

## ■ 벤치마킹

규모가 큰 농장임에도 관광사업을 위해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노력이 인상적 이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업무단지, 뉴타운지역개발 등 우리 주변은 환경을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개발논리만 앞세우는데 우리구 도심재생사업 등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방문후기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아주며 친절히 설명해주신 필립사장의 모습이 생각남.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과 소가축이 많은 나라로 유명함. 유기농산물도 내수보다 수출이 많으며 한국이 11%로 4위의 수출대상국임.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은 전형적인 6차산업화의 사례이다. 농장인력은 워킹 홀리데이를 활용하고 로토루아라는 유명 관광지 인근에 직접 물량을 판매를 한다. 우리나라 환경과는 비교 할수 없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다.

## ■ 방문사진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 현황설명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 방문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 방문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 방문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 방문



마마쿠 블루베리 농장 방문

## VI 결론 (맺음말)

복지선진국인 호주의 보육 및 노인복지 시스템과 뉴질랜드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정책 입안해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와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의 지방자치제도의 좋은 점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복지란 경제적, 금전적 지원과 함께 개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조화롭게 제공될 때 달성될 수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전달체제는 대부분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하여 운영하는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천개가 넘는 비영리 복지단체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복지 전달체계는 우리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롤 모델이며 과제일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광활한 면적을 소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 및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불편함을 적극 감수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안목과 국민의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본 받아야 할 개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 나라의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별도로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고 기부문화가 하나의 생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 세금과 기부금을 가지고 이들 나라들의 복지는 완성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선진화된 복지사회였으며,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국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우리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도입하여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삶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귀중한 밑천으로 사용할 것임을 다짐한다.